



“연중 제 3주일”

[마태 4, 12-23]

http://www.sjkoreancatholic.org/ 2011.1.23

금주의 강론



[심 홍보 신부님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갈릴래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포하실 첫 장소를 갈릴래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를 첫 선포지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래아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요르단 강 안쪽을 벗어난 곳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구원에서 제외되리라고 하던 외국인들의 도시, 가난한 이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로 가신 것에 대해 이사야 8장 2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마태 4,15-16)

이러한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을 뽑는 과정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평판

이 좋고 내노라하는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마태 4,18)를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 4,23)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마태 4,17)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늘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력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마태 4,23)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냥하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하시며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한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 12/28-1/25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에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용 음악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최다니엘 제공**

** Regina Coeli (Iambillotte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97>

** 서로 사랑하자 (Let's love each other) 김두완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465>

** 내 목자는 사랑의 왕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94>



12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블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23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분 명상

“ 뚜껑을 열자! ”

- 탈 벤-사하르의 《해피어》 중에서 -



나는 과연 어떤 뚜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장 가지고 받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
먼저 뚜껑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친구로부터 또는
자연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 선물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병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을 넣을 수 없다.
뚜껑이 닫힌 병에 물을 부으면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병은 채워지지 않는다.
행복을 향해 마음을 열자.

*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도 많은 뚜껑을 닫고 살아갑니다.
미움의 뚜껑, 무관심의 뚜껑,
부정적 사고의 뚜껑...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있는
마음의 뚜껑들입니다.
뚜껑을 열어야 상대의 선물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얼굴도 펴지고
행복의 꽃도 피어납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필리 4. 9)”

금주의명언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사랑을 낳으며, 사랑은 봉사를 낳는다.”